□ 체감 물가, 왜 오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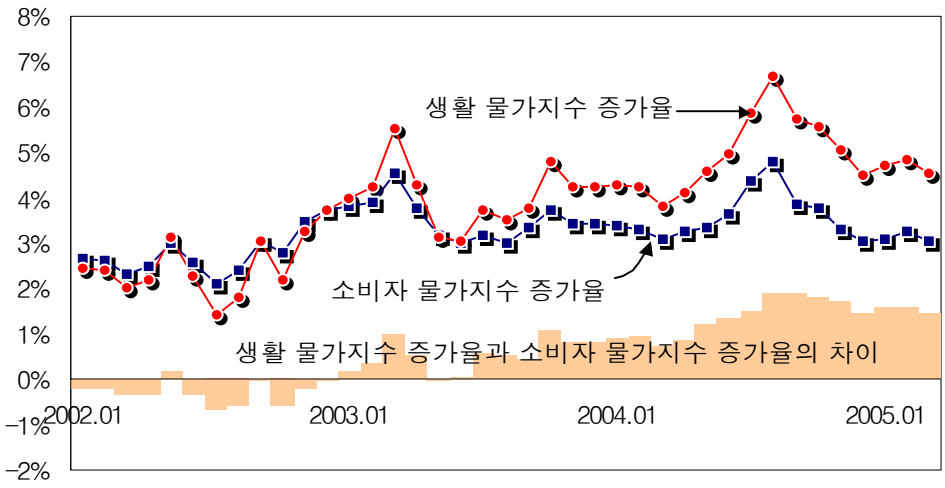
1. 생활 물가 상승

○ **(물가 착시 현상 지속) 3월에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에 그친 반면 생활 물가지수는 4.5% 상승하여 지수상 물가 안정이라는 물가의 착시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소비자 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현상 지속 :**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전년 동월 대비 2~3%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 물가지수[1] 상승률은 2004년 상반기 이후 4.5% 이상을 기록하여 소비자 물가지수와 1%p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생활 물가지수 사상 최고치 :** 특히 2005년 3월 전·월세비를 제외한 생활물가지수는 122.5를 기록하여 2005년에 들어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전월대비 1.3% 증가하여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생활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2) 생활 물가지수는 전세비와 월세비를 제외.

1) 생활물가지수란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 생필품 156개를 선정, 이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 근접한 개념임

2. 생활 물가 상승의 원인

○ **최근 생활 물가 상승 유형은 국내 수요 증가에 의한 수요견인형 보다는 고유가 및 교육비, 기타 생필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Cost Push)형임**

○ **(수요 측면) 국내경기는 아직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요견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차이 :**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간의 차이(Gap)가 1%p 이상임을 감안할 때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2004년 4/4분기는 3.3%에 그쳤음

○ **(비용 측면) 유가 및 교육비와 각종 식료품비 상승으로 생활 물가지수 상승**

- **유가 상승 :** 유류 중 생활 물가지수 구성 품목에 가중치가 높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은 각각 전월대비 2.6% 및 5.6%, 전년 동월대비 2.8% 및 16.6%씩 올라 생활 물가지수 상승을 견인

- **교육비 상승 :** 2005년 3월 새학기에 들어 교육 관련 비용이 집중적으로 올라 전월 대비 보육시설 이용료(11.4%), 각종 납입금(유치원 : 8.1%, 전문대 6.5%, 사립대 5.5%), 학교급식비(4.2%), 단과 입시학원비(2.7%) 상승

- **기타 생필품 :** 생활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계절적인 요인이 강하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매우 밀접한 배추(55.2%), 무(24.8%), 양파(14.4%) 가격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컸음

3. 고유가와 생활 물가

○ **(고유가가 최근 생활 물가지수 상승에 가장 큰 영향)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 상승률은 타 품목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생활 물가 상승의 기여도 측면에서는 매우 높았음**

- **전월 대비 :** 휘발유와 등유 가격은 상승률이 2.63%와 5.62%로 배추(55.18%), 무(24.83%), 보육시설 이용료(11.40%)에 미치지 못했으나 기여도로 보면 두 품목을 합해 0.34%p로 가장 높았음

- **전년 동월 대비 :** 휘발유와 등유 가격은 상승률이 16.55%와 2.82%로 사과 (42.62%), 배달우유(24.36%), 담배(27.81%)에 미치지 못했으나, 기여도로 보면 두 품목을 합해 0.61%p로 가장 높았음

< 생활물가지수 주요 상승 품목 >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주요품목	가중치 (%)	기여도 (%p)	상승률 (%)	주요품목	가중치 (%)	기여도 (%p)	상승률 (%)
배추	0.46	0.25	55.18	담배(국산)	1.67	0.46	27.81
휘발유	**7.92**	**0.21**	**2.63**	**등유**	**2.37**	**0.39**	**16.55**
사립대 납입금	2.87	0.16	5.46	시내버스료	1.78	0.31	17.36
유치원 납입금	1.72	0.14	8.12	도시가스	3.56	0.28	7.82
등유	**2.37**	**0.13**	**5.62**	사과	0.56	0.24	42.63
보육시설 이용료	0.8	0.09	11.40	**휘발유**	**7.92**	**0.22**	**2.82**
전문대 납입금	1.17	0.08	6.48	배달우유	0.84	0.21	24.36
무우	0.29	0.07	24.83	유치원 납입금	1.72	0.14	8.35
입시학원비(종합)	2.57	0.07	2.70	사립대 납입금	2.87	0.14	4.89
중고교 납입금	2.57	0.07	2.38	입시학원비(종합)	2.57	0.14	5.39

자료 : 통계청.

주 : 1) 2005년 3월 기준.

2) 순서는 물가 상승 기여도 순.

○ **(유가는 생활 물가의 체계적 변수) 유가는 그 어느 품목보다 체계적으로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침**

- 교육비나 생필품의 가격 변동은 계절적 요인이 강하고 단발성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인상시기를 단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반면 유가는 통제 불가능한 외생적 변수이며 체감물가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체계적 변수(Systematic Factor)로 작용함

○ **(고유가 당분간 지속) 국제 기관들의 유가 전망을 살펴보면 2005년 Dubai 기준 유가는 배럴당 평균 39~47.3달러에 이를 전망임**

< 국제 기관들의 유가 전망 >

기관	유종	2004	2005
CGES (2월)	Brent	38.2	44.5 (16.5%)
ESAI (3월)	WTI	41.4	47.9 (15.7%)
	Brent	38.2	45.2 (18.3%)
	Dubai	33.7	39.7 (17.8%)
CERA (2월)	WTI	41.4	58.5 (41.3%)
	Brent	38.2	54.5 (42.7%)
	Dubai	33.7	47.3 (40.4%)

주 : 1) 괄호 안은 전년대비 상승률임.
2) CERA는 공급 부족의 경우이며, 타 기관은 평균적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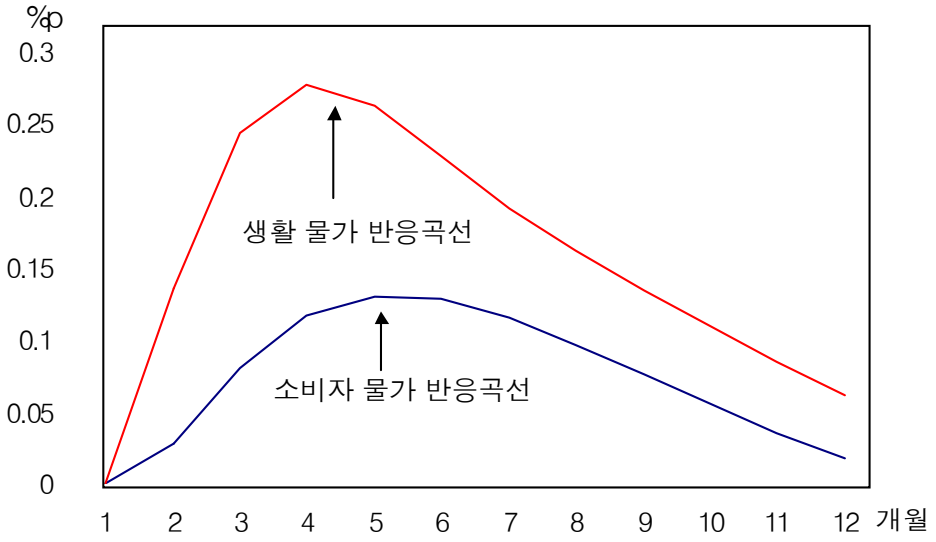
○ **(실증 분석)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2개월부터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4개월 후에 생활 물가지수를 0.28%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방법론 :**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통해 예기치 못한 유가의 변동이 물가(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로 유가의 외생적 변화에 따른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의 반응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 생활물가는 충격 후 물가상승압력이 절정에 이르는 기간이 4개월로 소비자 물가의 5개월보다 짧고,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점을 기준으로 두 배가 넘었음
  · 유가 충격 정점시 생활 물가지수는 0.2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물가지수의 0.13%p에 비해 유가 충격에 대한 반응은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장바구니 물가에 근접한 생활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유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현재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비롯되고 있는 체감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큼을 의미함

< 유가 1달러/배럴 인상에 따른 물가의 반응 >



자료 : 통계청.

주 : 1995년 1월~2004년 2월 까지의 자료를 이용, VAR 모형을 통해 추정.

< 소비자, 생활, 수입 물가의 충격반응 결과 요약 >

구 분	충격 후 반응시점	정점		지속기간
		시기	물가상승압력	
소비자 물가	2개월 부터	5개월 째	0.13%p	충격 후 14개월 까지
생활 물가	2개월 부터	4개월 째	0.28%p	충격 후 16개월 까지

- 이러한 현상은 유가 상승기에 생활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과거 경험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

· 평균 유가가 배럴당 25.9달러였던 2002년 5월~2003년 9월 기간에는 생활 물가지수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차이가 0.1%p로 미미

· 하지만 유가 상승기인 2003년 10월부터 2005년 3월 기간에는 그 차이가 1.3%p로 확대되었음

< 평균 유가와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간의 괴리율 관계 >

기간	2002년 5월~2003년 9월	2003년 10월 ~ 2005년 3월
평균 유가 (배럴당)	25.9 달러	33.6 달러
평균 괴리율	0.1%p	1.3%p

자료 : 한국은행, 석유공사.

주 : 1) 평균 유가는 두바이 현물가격 기준.

2) 괴리율 = 생활 물가지수 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단, 상승률은 전년 동월 기준).

3. 시사점과 대응방안

○ **(시사점) 분석 결과 유가 충격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생활 물가지수에 더 큰 영향을 주어 향후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큼**

○ **(문제점)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은 소비자 물가와 생활물가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켜 물가의 착시현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 구매력 감소를 통한 내수 위축과 자금 흐름 왜곡 등의 부작용 초래**

- **물가의 착시현상 :** 유가상승이 체감물가에 근접한 생활물가에 보다 큰 영향을 주면서 소비자 물가지수와의 괴리현상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제주체들은 물가 상승의 위험을 간과할 가능성이 큼

- **경기 회복 가능성 후퇴 :** 고유가는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체감물가를 상승시켜 소비를 위축시키며,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부진과 고용부진으로 확산되면서 최근의 소비심리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금 흐름의 왜곡현상 심화 :** 낮은 금리, 미래에 대한 불안, 가계 부채 문제, 청년 실업 문제의 장기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자금 흐름 왜곡을 심화시킬 것임
  · 이론상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금융권에서 자금이 이탈,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금조달비용과 소비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가 상승곡선으로 반전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가계 부채 문제, 청년 실업 문제의 장기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금융권에 묶여있는 자금이 소비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함
· 그렇다면 낮은 이자에 실망한 자금은 은행권을 이탈하여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거품을 일으키거나, 지금과 같이 단기 부동화 상태로 금융권에 묶이는 현상이 지속될 것임

○ **(대응방안) 지금의 물가상승 압력은 고유가에 의한 비용 상승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정·통화신용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비용요소를 줄이는 미시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

- **공공요금 인상 계획 유보 :** 현재 고유가로 인한 체감 물가 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의 인상 계획 유보를 적극 검토해야 함
  · 2005년 하반기에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19.5%, 모범 23.8% 인상)과 하수도 요금(약 30~40% 인상)등 공공·교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체감 물가의 상승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자원 확보 적극 참여 :**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세계 에너지 자원 확보전에 참여해야 함
  ·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온 것은 97%에 이르는 에너지 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 때문임
  ·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유가 변동의 위험성을 상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아직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성이 주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가야 함
  ·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2]는 2002년 기준 0.36으로 일본(0.11)보다 3.4배 높으며, 대만(0.29), 싱가폴(0.26), 미국(0.23)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임

이상우 선임연구원 (3669-4014)

2) 에너지원 단위는 실질 GDP 1천 달러 생산 시 투입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TOE로 환산한 것(TOE ; 각종 에너지원을 원유 1톤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